

# 직장갑질 금지법 4개월...폭언·따돌림 여전

광주 남구 동상 상습 성희롱적 발언...노조 엄중 처벌 촉구  
 화순전남대병원 노조, 폭언·폭행·가족진료 교수 파면 요구  
 광주시노동센터 상담 접수 30여건...방지법 실효성 논란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곳곳에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이른바 '직장 갑질'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 남구 A동장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직원들에게 수집한 갑질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동장으로 부임한 A동장은 최근까지 보건 휴가를 쓰는 직원들에게 "아파서 쉬는 게 아니지?", "남자들은 못 쉬는데 여성들만 보건 휴가와 돌봄 휴가를 쓴다" 등 부하 직원들에게만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는 4차례 걸쳐 "오늘 그날이라 아프냐"고 말하는가 하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조차 힘들 정도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도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화순전남대병원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폭행·갑질·가족진료 특혜를 일삼은 B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B교수는 여성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없다", "멍청하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위협적

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을 향해 의료 기구를 집어 던지거나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갑질 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시노동센터에 '직장 갑질'을 이유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노동센터 관계자는 "접수된 상담 내용 상당수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성희롱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면 부당 전보나 해고, 권고사직으로까지 이어져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고통도 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 갑질을 당해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정작 갑질을 하고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미선 광주시노동센터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밖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들을 위한 강화된 대책과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구 개인정보보호 순회 캠페인 광주 북구청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21일 북구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인식제고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순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4명 "승진서 차별"

여성정책연구원 763명 설문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여성 542명, 남성 221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27.1%)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 (30.4%)가 대부분이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다.

## 예비 고3 EBS 입시설명회 광주교육청 내일 동신고서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광주 동신고등학교 정원관에서 '2021학년도 대입예비 고3 EBS 광주지역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심주석 대표강사가 '고교 2학년을 위한 과목별 학습법 및 EBS 활용전략'을 안내하고, 정재원 대표강사가 '2021 대입의 이해 및 성공 전략'과 '수시 및 정시지원 전략', '전형별 지원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중국인이 참여한 족발·소시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전자가 확인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과 한국인이 가진 신고한 족발과 소시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축산물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22건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달뜨기	01:54
해질	17:23	달지기	14:52

소설(小雪)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7/19	보성	맑음	4/17
목포	맑음	8/17	순천	맑음	7/18
여수	맑음	11/17	영광	맑음	5/19
나주	맑음	4/19	진도	맑음	9/18
완도	맑음	10/18	전주	맑음	5/18
구례	맑음	2/19	군산	맑음	5/18
강진	맑음	7/18	남원	맑음	3/19
해남	맑음	7/18	흑산도	맑음	12/17
장성	맑음	3/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0.5~2.0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2.0
남해서부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1.0~1.5	동~남동 1.0~2.0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좋음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16	10:08
	15:36	22:42
여수	11:24	05:34
	--:--	17:49

◇주간 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	☁	☁	☁	☁	☁	☁
8/22	11/21	5/10	5/14	6/12	4/12	3/11

## 햄버거 업체 특별점검 광주 3·전남 1곳 적발

광주·전남에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15일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한 결과, 19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이다. 광주에서는 3곳, 전남에서는 1곳이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맘스터치 주월점과 맥도날드 산정DT점이 위생불량 적발됐고, 맘스터치 광주상무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다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맘스터치 담양읍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가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에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동부소방서 '119 안전나눔 공유방' 운영

광주동부소방서는 '119 안전나눔 공유방'을 운영한다.  
 '119 안전나눔 공유방'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교육 기자재, 각종 생활공구를 시민들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율안전 관리 문화 정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전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유 물품으로는 소방점검에 필요한

열연기감지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전류전압측정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 유아용 및 성인 방화복 세트,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동드릴 등 공구세트, 릴선 등이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유 가능하고 사용가능 기간은 5일까지며, 문의사항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